

광주시체육회장 후보군 5자 단일화 무산되나

2차 회동에 3명만 참석...김용주 축구협회장, 전갑수 배구협회장 지지 유력후보 2명 단일화로 판도 변화...체육계 "반목·갈등 해소 계기되길" 12월 15일 회장 선거 앞두고 후보간 단계적 단일화 논의 활발해질 듯

광주 체육계의 눈길이 쏠렸던 광주시체육회장 후보군 5자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대신 5자 단일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후보간 단계적 단일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광주 체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김용주 생활체육 축구협회장, 박찬모 육상연맹회장, 이창현 수영연맹회장, 전갑수 배구협회장, 홍성길 배드민턴협회장(이상 가나다순) 등 5명이 모여 후보단일화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단일화 방안을 압축하기 위해 지난 1일 2차 회동했으나 김용주, 박찬모, 전갑수 회장 등 3명만 참석했다. 나머지 2명은 개인 사정 등으로 불참했다. 불참자들은 직·간접적으로 뜻을 아직 정리하지 못했거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달리 김용주 회장과 전갑수 회장은 모처에서 만나 전갑수 회장으로 단일화에 합의했다. 김 회장은 '체육계에서 신망이 두터운데다 자질을 검증받은 후보로 단일화하는 것이 광주 체육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간 1차 단일화가 성사됨에 따라 다른 후보들과 단일화 논의에도 변화가 점쳐진다. 체육인들의 기대와 염원을 바탕으로 단일화에 합의한 만큼 5자 단일화의 틀을 유지하되, 단계적 단일화로 방향을 선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단일화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이번 단일화는 체육회장 선거일이 오는 12월15일로 바

짝 다가옴에 따라 단일화에 동의한 사람부터 단일화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두 출마예정자의 단일화는 체육회장 선거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 회장은 1대 회장 선거에서 당선자와 불과 10표차인 137표를 얻었고 2대 회장 선거에서도 110표를 획득하는 등 고정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 그가 두 차례 선거에서 전문 스포츠계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는 반면, 생활체육계 표심을 얻는데 고전했기 때문에 김용주 회장과 단일화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생활 체육계 인사인 김 회장은 1대, 2대 회장 선거에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 체육계에서는 단결과 화합을 위해 체육회장 후보를 단일화하거나 추대하는 방안이 꾸준히 모색돼 왔다. 체육회장 선거가 과열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체육인들 간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선거 후유증도 심각했기 때문이다. 광주시 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체육회장 선거가 체육인들을 반목과 갈등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출마자 모두가 참여하여 대등적 차원에서 단일화하거나 합의 추대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체육인들 사이에 컸다"면서 "유력 후보들의 단일화가 광주체육회장 선거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뒷심 부족 AI페퍼스 개막 3연패...“첫승이 필요해”

GS 칼텍스전 1세트 따냈지만 상승세 못 이으며 1-3 역전패

광주 AI페퍼스가 개막 후 내리 3연패를 기록했다. 페퍼스는 2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2-2023 V리그 여자부 원정 경기 GS 칼텍스전에서 세트 스코어 1-3(25-23, 15-25, 18-25, 10-25)으로 역전 패했다. 페퍼스는 개막 후 내리 3연패를 당했다. 페퍼스는 지난 시즌 GS 칼텍스와 5차례 겨뤘 모두 세트 스코어 0-3으로 패했으나 이날 의미 있는 한 세트를 거둬들였다. 페퍼스는 현대건설에 이어 GS 칼텍스전까지 최근 2경기에서 각각 1세트를 따내는 등 가능성을 선보였다. 1세트는 페퍼스의 완승이었다. 외국인 선수 니아 리드가 10점을 뽑아내며 공격을 이끌었다. 리드는 22-20으로 쫓기는 상황에서 킥오픈으로 연달아 3점을 따내며 세트를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리드가 2세트에서 2점을 뽑아내는 데 그치는 등 부진하자 15-25로 허망하게 세트를 내줬다. 페퍼스는 2세트에서 1세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사실상 승기를 빼앗긴 뒤 반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김형진 감독이 "어수선한 플레이를 하고 있다"



광주 AI 페퍼스가 2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2-2023 V리그 여자부 원정경기 GS 칼텍스전에서 1세트를 따낸 뒤 기뻐하고 있다. <COVO제공>

고 질책할 정도로 전력이 흐트러졌다. 페퍼스는 4세트에서 10득점에 그치는 등 올 시즌 최저 세트 득점을 기록했다. 경기 기록에서도 열세가 그대로 노출됐다. GS 칼텍스가 공격 성공률 67%를 기록한 반면, 페퍼스는 44%에 그쳤다. GS 칼텍스가 디그(상대방의 득점을 막아내는 수비) 96개를 기록했지만 페퍼스는 66개에 머물렀다. 이날 페퍼스 주포 니아 리드가 18점, 이한비가 11점, 최가은이 9점을 뽑아냈으나, GS 칼텍스 모마는 26점, 유소연 20점, 강소휘 17점 등 전위 공격수들이 파괴력에서 앞섰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지난 2019년 12월 광주 진월테니스장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테니스 선수단의 재능기부 강습회. <광주시테니스협회 제공>

도로공사 테니스선수단, 동호인 대상 재능기부

12일 50여명 대상 원포인트 강습

한국도로공사 테니스선수단(도공 테니스단)이 지역 테니스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에 나섰다. 3일 광주시테니스협회에 따르면 협회와 도공 테니스단은 오는 12일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지역 테니스 동호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원포인트 강습회를 연다. 도공 테니스단은 지난 2019년 7월 광주시체육회와 광주 연구 유치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에 광주 소속으로 출전해 왔다. 지난 2019년 12월 연구지인 광주지역 동호인들의 활성화와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처음 재능

기부 강습회를 시작했다. 그동안 코로나 19 여파로 강습이 중단됐으나 올해 재개한다. 최중현 감독을 비롯해 전한국선수권대회 개인전 우승자 김다빈 등 선수 7명은 이날 동호인들에게 원포인트 강습과 초급자(15명)·중급자(20명)·상급자(15명) 지도 등에 나섰다. 김성남 광주시테니스협회장은 "올해 전국체전 여자일반부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기량을 갖춘 도공 테니스단 선수들의 재능기부 강습회가 지역 동호인들의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특히 초급자들에게는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쉽게 테니스를 접할 수 있도록 김집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두달만에 공식대회 출전 나달 첫판서 탈락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이 약 2개월 만에 출전한 공식 대회 첫판서 탈락했다. 나달은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롤렉스 파리 마스터스(총상금 541만5410유로) 대회 사흘째 단식 본선 2회전에서 토미 폴(31위·미국)에게 1-2(6-3 6-7(4-7) 1-6)로 졌다. 9월 초 US오픈 16강에서 프랜시스 티아포(21위·미국)에게 1-3(4-6 6-4 4-6 3-6)으로 패한 이후 약 2개월 만에 투어 대회에 출전한 나달은 이 대회 1회전을 부진승으로 통과했지만 2회전 벽을 넘지 못했다. 나달은 US오픈 이후로는 이벤트 대회인 레이버컵에만 한 차례 모습을 보였다. 로저 페더러(스위스)의 은퇴 경기로 진행된 율해 레이버컵에서 나달은 페더러와 한 조를 이뤄 북

식 경기를 뛰었다. 10월 초 득남, 아빠가 된 이후 처음 코트에 나선 나달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했을 경우 현재 세계 1위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의 성적에 따라 세계 1위가 될 수 있었다. 알카라스는 2회전에서 10월 초 서울에서 열린 ATP 투어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오픈에서 우승한 니시오카 요시히토(38위·일본)를 2-0(6-4 6-4)으로 몰리치고 16강에 안착했다. 알카라스는 16강에서 그리고르 디미트로프(28위·불가리아)를 상대한다. 노바크 조코비치(7위·세르비아)도 16강에 올라 카렌 하차노프(19위·러시아)와 8강 진출을 다툰다. 알카라스와 조코비치는 결승에 올라야 맞대결할 수 있다. /연합뉴스

혼신의 안마 연기

김재호(20·한국체대)가 2일(현지시간)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국제체조연맹(FIG) 51회 세계체조선수권 남자 단체전 결선에서 안마 연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자백
2관	블랙 아담
3관	자백, 리멤버, 미시즈 해리스 파리에 가다
4관	자백
5관	리멤버, 걸리버 리턴즈
6관	리멤버
9관	인생은 아름다워,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수수께끼가 꽃피는 천하백일학교, 스마일
7관 씨네키움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수수께끼가 꽃피는 천하백일학교, 가재가 노래하는 곳
8관 씨네키움	리멤버, 블랙 아담, 분노의 추격자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포시즌 실내악시리즈 ⑥ 뷔에르 앙상블 일시 : 2022. 11. 21.(월) 19:30 장소 :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 062-613-8235	GAC기획·포시즌 실내악시리즈 ⑥ 몰토 콰르텟 일시 : 2022. 11. 7.(월) 19:30 장소 :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 062-613-8235
---	---